

# “한자 교육으로 부처님 법 알려요”

관음종 송광정사, 토요일 부산교육청 우수기관 지정



매주 토요일 무료 한자 교실을 운영하는 송광정사는 부산교육청의 우수기관으로 지정됐다.

동북아 시대에 꼭 필요한 언어 중 하나는 바로 ‘한자’다. 주요 국가인 한국과 중국, 일본이 모두 한자문화권에 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자 교육은 동북아 시대를 이끌 인재에게는 꼭 필요하다.

40개 우수기관 중 유일 사찰

매주 무료 한자교실 운영

2006년부터 시행...지역민 호평

부산 연제구 관음종 송광정사(주지 진각)의 학생들을 위한 한자 교실은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1월 17일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발굴·시상하는 ‘2012 지역사회토요스쿨 우수기관’에 지정됐다.

이날 시상은 지난해부터 전면 자율 시행하고 있는 주5일 수업제와 관련, 지역사회 토요스쿨 활성화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평가는 프로그램 실적, 참여 현황, 프로그램 수준, 수행 능력, 운영 의지 등 총

5가지 항목으로 이뤄졌으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토요스쿨을 운영한 40개 기관을 지정했다. 불교계 복지기관으로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선정됐으며, 사찰은 송광정사가 유일하다.

이번에 우수기관으로 지정된 송광정사의 ‘동북아시아 인재육성을 위한 한자교실’은 2006년부터 7년 동안 지역 내 아동들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매회 15명 안팎의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한문교실에 동참하고 있으며 한자 전문 지도사 2명을 유급 강사로 채용해 교육의 질을 높였다.

이번 토요일 지정에 대해 주지 진각 스님(관음종 부산중무원장)은 “불교의 교리를 많이 공부하고 한 가지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 보다는, 교리 공부 부족해도 자비실천이 생활화 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라며 “한자를 배우러 온 아이들이 한자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불심이 피어나길 기원한 것이 이렇게 좋은 결과로 만들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스님 역시 국가공인 한자 1급 자격증을 소지해 한자 교육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진각 스님은 “한자 교실에는 한글도 채 익히지 못한 미취학 아동들도 많지만, 아이들도 조금만 교육하면 곧잘 한자를 쓸 수 있게 됐다”며 “초기에는 산만해 좌절하지 못했던 한 학생은 국가공인한자 1급 자격증 시험을 준비할 정도로 교육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051)867-8438

박경수 부산지사장

# “정각 이룬 부처님 유지 이어받자”

조계종 부산연합회, 13일 성도재일 연합 법회



부산聯 성도재일 법회 장면

조계종 부산연합회(회장 수진)가 성도재일을 맞아 부산 백스코에서 기념법회를 열고 시민 불자들과 함께 성도의 축와 기쁨을 함께 했다.

1월 13일 봉행된 제2회 성도재일 기념 법회에는 조계종부산연합회장 수진 스님(해인정사 주지), 보성 스님(송광사 방장), 수불 스님(부산불교연합회장·범어사 주지), 원산 스님(통도사 주지), 해종 스님(진포교원장), 원택 스님(조계종부산연합회 고문), 허남식 부산시장을 비롯해 사부대중 1,500여명이 참석했다.

수진 스님은 대회사로 통해 “성도재일을 맞아 우리 모두가 전법사가 돼야 한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그것만이 부처님의 은혜를 받고, 부모의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회에서는 2부 행사로 불교교리 퀴즈 대회인 ‘제2회 도전 범종을 울려라’가 진행됐으며, 퀴즈대회는 3인1조로 총 55개팀, 165명이 참가했다.

한편, 이날 법회 주최 측은 자비나눔 성금 1,000만원을 허남식 부산시장에게 전달해 그 의미를 더 했다.

# “받은 만큼 이웃에게 돌려주고자”

용호복지관 어르신 재능기부 ‘훈훈’



용호복지관 어르신 재능기부 현장

1월 17일 부산용호복지관(관장 이춘성)에서는 뜻깊은 재능기부행렬이 이어졌다. 평소, 복지관의 도움을 받아오던 어르신들이 저체온증으로 죽어가는 빈곤국의 신생아들을 살리기 위해 재능기부를 했다.

이들은 노인자살, 노인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용호복지관에서 시행중인 ‘참된 삶’ 프로그램에 동참했다가 ‘재능기부’를 결심하게 됐다. 이번 재능기부에 동

참한 노인들은 총 15명으로 37개의 모자를 손수 만들어 복지관에 직접 기부했다. (051)628-6737 박경수 부산지사장

# 고운사 청소년 문화탐방



고운사 문화탐방 실시

고운사(주지 호성 스님)는 경북 북부 지역 저소득층 자녀 40명을 대상으로 1월 14일~16일까지 ‘제6회 장학금 전달식 및 서울 문화탐방’을 실시했다. 이들은 국회의사당과 KBS를 견학하고 KBS 열린음악회 관람 등 1박 2일 동안 문화탐방을 성료했다. 또 이들에게는 각각 30만원의 장학금도 지급됐다.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어려운 환경을 타지 말고 나를 다지는 계기로 삼아 열심히 노력하라”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 운불련 성승길 회장 취임

1월 14일 동화사서

한국운전자불자연합회대구지회회 제13대 성승길 회장 취임식이 1월 14일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열렸다.

이날 성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원화합을 통해 대구 운불련을 세계 최고의 호출백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성승길 신임 회장은 지난해 9월, 13대 대구 운불련 회장에 당선됐으며, 올해 1월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한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 ‘눈치우기’ 사찰도 적극 나서야

최근에 눈치우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예년에 비해서 많은 눈이 내린 올 겨울, 눈을 치우지 않아 도로가 빙판이 되는 바람에 차량사고는 물론 보행자들이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다양한 사고들이 줄을 이었다고 한다.

눈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준 선물이었다. 어린 시절 밤새 내린 눈을 보고 마음이 떠들떠 아침밥도 먹지 않고 등네를 서성이던 추억, 동네 꼬마친구들과 눈사람을 만드느라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즐거워했던 추억, 눈 내리는 거리를 연인과 팔짱을 끼고 하염없이 걸었던 추억,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보며 친구나 사랑하는 연인에게 편지를 쓰던 추억... 등등.

그러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눈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는 선물이라기보다는 출근길을 걱정하게 만드는 원인이요, 잘못해서 낙상이라도 하게 되면 병원신세를 져야만 하는 두려운 존재가 되고 말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눈이 오면 자기 집 앞의 눈을 동네사람들이 힘을 모아 치우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눈이 내려 빙판이 되든 말든 관심을 가지지 않는 몰인정한 사회가 되어버렸다. 이런 세태를 반영이라도 하듯 서울 시에서는 자기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으름장이다.

산사에서 눈 내리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야말로 행복한 일이었다. 어떻게 산을

내려갈지 걱정하기 보다는 온 세상을 하얗게 만들어주는 눈을 보며 환희심을 가졌던 기억이 아련하다. 스님이 쉬고 가라며 밤을 내주면 염치없이 하룻밤을 지내는 호사를 누리기도 했다. 따뜻한 방에서 마당에 눈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사랑하는 이를 떠올려보는 것은 불자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 산속 깊은 곳에도 차량통행이 많아지면서 산길 역시 눈을 치우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사고가 날 위험성이 늘어나게 되었다. 더구나 걸어서 산사에 가는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눈이 쌓여 빙판이 되면 걷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물론 도심사찰의 경우에는 불자들의 사찰출입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이나 불편함은 산사에 비길 바가 아니다.

올 겨울 다른 해에 비해 눈이 많이 올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었다. 사찰이라고 해서 눈치우기를 소홀히 하여 사찰에 오는 불자들을 힘들게 한다면 이따행을 실천하라는 부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일이 될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산사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숲길도 눈을 치우지 않으면 위험한 길이 된다. 전라북도 N사찰

#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 합니다.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범당 연등 설치도 바쁜 하나로 해결하세요.

어새 로진등

플라스틱케이블등

주름 등

양정기(관전등)

컬러보카시엔등

영가 등

극락양생

※ 사찰명 인쇄시 제작기간이 소요되오니 예약 주문 바랍니다 ※

연등 자동 승강장치 - 흥은사

운장대 인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찬덕 LED 전구  
11W 365lm,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98원/1kwh

LED 전구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031)792-6288, 794-4055 / 팩스: 031)794-6288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